

COMMISSIONERS

추기석전(秋期釋尊) 봉행에 초헌관(初獻官)으로 분향



추기석전대제에 참석해 초헌례를 집전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권성 위원장이 9월 28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린 추기 석전 대제에서 초헌관으로 제례의 첫 잔을 올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인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초헌관은 종묘제례 등에서 세 차례 헌작을 하는 삼헌(三獻) 중 첫 번째로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헌관 중 으뜸이다.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임금이 초헌관 역할을 수행했다. 석전대제는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의 향교에서 공자의 기신일인 매년 양력 5월 11일과 탄강일인 양력 9월 28일에 동시에 봉행된다.

이날 봉행은 초헌관인 권성 위원장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시작해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헌작례 차례로 이어졌으며, 이어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음복 잔을 마시는 음복례가 끝나고 폐백과 축문을 불사르고 땅에 묻는 망료례를 끝으로 마쳤다.

공자 탄강(誕降) 256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석전대제는 성균관이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했다.



성균관 추기석전에서 초헌관을 맡아달라는 확인서인 망기(望記)를 전달받고 있는 권성 위원장(2013년 9월 16일)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

장진훈 위원(서울 제2중재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영화에 출연했다. 장 위원은 아들인 장현상 감독이 연출한 ‘네버다이 버터플라이’에



서 고등학교 선생님 역으로 카메오 출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재학 중인 장현상 감독의 이 작품은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새로운 시선’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네버다이 버터플라이’는 학교 ‘짱’의 괴롭힘을 받던 소문난 ‘찐따’ 학생이 고3 시작과 동시에 전학온 싸이코 친구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변해간다는 유쾌한 학원물이다. 이 영화는 10월 17일 개봉 예정이다.

위원회 소식

NEWS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10월 30일 실시되는 201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선거기사심의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를 설치했다. 위원장 박기동은 선거일 전 60일인 8월 3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초청 강연 실시



위원회는 9월 6일 김해원 포스코 미래창조 아카데미 강사를 초청해 ‘효과적인 강의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위원회 직원들의 강의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몽골, 한국의 조정중재제도 모델에 '관심' 집중

– 몽골 유력 언론인 10명 언론중재위 방문

S.Gantogoo 몽골신문협회장 등 몽골의 유력언론인 10여 명이 9월 11일 위원회를 찾았다. 위원회를 방문한 언론인들에게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몽골언론인들은 위원회의 조직 체계과 조정절차 그리고 조정사건 내용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몽골에도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학철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의 언론분쟁 해결 절차는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몽골에도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의 한·몽 미래지향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S.Gantogoo 몽골신문협회장, B.Yumurtogoo ZuUnii Medee 부사장, B.Bat-Orgil MNC TV 사장 등 언론인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를 찾은 몽골 언론인들이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강연을 듣고 있다.



정학철 부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몽골 언론인들이 간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참석



AIPCE 연례회의에 참석한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올해 주관자인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Arik Bachar(오른쪽에서 세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김재원 위원, Arik Bachar 사무총장,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교육본부장)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손영준 위원, 홍숙영 위원, 김재원 위원과 오광건 사무총장, 심영진 교육본부장, 이홍길 차장보가 참석했다.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이번 연례회의에는 '변화하는 언론과 언론평의회', '사이버시대의 사생활', '언론의 자유와 윤리적 딜레마' 등 언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분쟁지역에서의 보도'와 '인터넷 댓글의 남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차기 AIPCE 연례회의 유치를 신청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유럽언론평의회 제정 체성 유지를 이유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 차기 개최국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회원국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한국이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면 AIPCE도 가까이 참석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내년도 제16차 AIPCE 연례회의 서울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중인 홍숙영 위원